

‘그냥 이대로’냐 ‘한 방에 역전’이냐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이제 딱 11일 남았다. 5월9일 ‘장미 대선’. 앞으로 열한 밤을 자고 나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레는 맘으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린다. 어찌 설레지 않겠는가. 누가 되는 다들 우리를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 준다 하니.

이번 대선은 더군다나 야권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필통 수구 세력의 당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레 예전처럼 맘을 졸일 필요도 없다. 누가 되어도 우리 편이다. ‘꽃놀이패 선거’,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 초반엔 ‘이대문’ ‘저대문’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요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것이었다.

막강해진 TV토론 영향력

여기에는 안 후보의 ‘우(右) 클릭’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갈 곳 잃은 보수 표심(票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뚜렷이 맘 둘 곳 없게 된 그들은 반기문·황교안·안희정을 거쳐 안철수 쪽으로 크게 쏠리는 듯하더니 최근엔 다시 홍준표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구축했던 양강 구도에 다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몇 차례 TV토론을 거치면서 오로지 모범생 이미지만 보여 주었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심지어 TV토론에서 ‘돼지 흥분제’ 사건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은 데다 ‘술 덜 갠 아저씨’ 같다는 평가까지 들었음에도, 오르고 있는 홍 후보의 지지를 변동과도 무관치 않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전(善戰)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안 후보로서는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흔히들 이번 선거를 ‘3무(無) 대선’이라고 한다. 첫째, 현직 대통령이 없고, 둘째, 좌우 대결의 이념이 없으며, 셋째, 영호남 대결의 지역 구도가 사라진 선거라는 것이다.(여기에 ‘이념’을 빼는 대신 ‘호남 출신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포함시키는 이도 있다.)

과연 그렇까? 현직 대통령과 호남 출신 후보가 없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구도’와 ‘이념’이 확실히 없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니 어느 정도 지역 구도가 완화됐다는 사실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호남만 해도 과거의 물표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과 안으로 표가 적당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저쪽(경상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TK(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여차피 보수 정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드(THAAD) 찬반과 북한 주적 논쟁은 이번 선거에서 사라지는 듯했던 ‘이념’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특히 몇 차례 ‘대선 후보 TV토론’을 거치면서 안보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기도 했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에 따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출렁거렸다.

이제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후보 단일화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 유승민과 안철수의 단일화, 그리고 이들 3자가 모두 포함되는 단일화다.

이중 3자 단일화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우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독이 든 사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양자 단일화인데 4~5% 선에서 지지율 정예에 시달리는 바른정당으로서서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나 아니면 차라리 국민의당을 지지함으로써 다음을 기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

국민의당으로서도 막판에 로또복권 당첨처럼 ‘한 방에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라는 카드가 절실히 보인다. 문제는 호남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일 텐데, 아마도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과의 연대라면 묵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법도 하다. 물론 ‘게도 구력도 다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은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 내일모레(30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당내에서는 일부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저마다 완주를 다짐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도 선거 막판에 이뤄졌다.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앞으로 김종인과 손학규의 처신과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어찌 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대선 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등장한 남은 두 번의 TV토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호남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참으로 짐치기 어려운 선 거다.

다만 누가 되든(여차피 그 어느 쪽도 호남 물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호남에서 받아들게 될 표의 수지만 갖고 서운해 할 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호남 홀대에 마침표를 찍는 담대함을 보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집권하면 무조건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서로 과도한 네거티브만큼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광주 챔피언스필드, 대선 핫플레이스

1위 달리는 KIA 인기 물결에 선거 홍보 최적의 장소

민주 이재정·고민정...국민의당 김한길·박지원 등 발길

선관위 오늘 시구·시타 행사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이번 제19 대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017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다 기아 타이거즈 팬층이 두터운 관계로 정치인들에게 최적의 선거 홍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들과 함께 응원을 하며 스킨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기아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광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다.

대구를 지역구로 가진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광주를 찾는 동안 야구장 유세에 참석하는 등 민주당의 유세 코스가 됐다.

이처럼 민주당 인사들이 광주 챔피언

스필드를 선거 홍보 장소로 선점한 것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었던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과 고민정 대변인이 기아-넥센전 경기에 참석 한 이후부터다.

이 의원과 고 대변인은 이날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챙겨입고 5월9일 투표일을 의미하는 59번 등번호까지 새겨 경기장을 곳곳을 누비는 등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대구출신이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인 설전으로 광주에 서도 잘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이미 유명 아나운서였던 만큼 선거를 떠나 시민 모두 크게 반겨주셨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고 대변인의 야구장 방문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이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제가 되자 이후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당도 챔피언스필드를 광주 유권

자들과 만나 안철수 후보를 홍보하는 장소로 톡톡히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매우 전략적으로 챔피언스필드를 활용하고 있다.

아침 출근길부터 종일 광주 시내 곳곳을 누비며 움직이던 유세단들을 경기가 열리는 날 저녁때면 인지도 높은 당내 인물들을 위주로 챔피언스필드로 집결시켜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전날에도 광주와 전남을 따로 누볐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저녁 시간대 야구 시작 직전 야구장 입구에서 함께 모여 홍보전을 펼쳤다.

한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최연소 유권자 시구·시타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구자는 1998년 5월 10일, 시타자는 1998년 5월 4일생인 여대생으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선은 1998년 5월 10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

／최권일·이종형 기자
cki@kwangju.co.kr



사드반대 100배 기도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평화 100배 기도 ‘전쟁반대 사드반대 천만번의 비음, 천만개의 평화’에서 성주·김천·원불교 사드배치반대유 관계자들이 100배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곧 실제 운용 북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국방부는 27일 성주골프장에 들어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주골프장의 사드를 수일 내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함대사령관의 발언이 시범 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범 운용이 아니라) 실제 운용”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의 정상 가동이 오늘부터는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늘부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이쪽으로 쏘면 사드를 가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변인은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은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사드 장비가 이미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변인은 “현재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배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토 지

- 용문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가든식당 전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3,070㎡ 매1.3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 문의 010-2572-4663